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따른 전공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

이향숙*, 노종수*, 차정진*, 김소란**, 김슬기***, 박상글****, 심승진*****, 이지혜*****, 추민숙*****

*대전보건대학 작업치료과

**안양참서울재활병원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행복이 가득한 어린이집

*****대전보람병원

*****부천현대병원

*****밀알복지관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후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임상실습에 따른 전공 취업의 진로 결정과 희망기관 및 분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2008년 6월 23일부터 2008년 12월 30일까지 본 설문에 응한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고, 총 346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7.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다중응답분석, 독립 t-검정, 주변 동질성 검정, Kruskal-Wallis검정을 사용하였다.

결과 : 임상실습의 만족도에서는 치료 장비와 도구의 다양성, 정해진 일정에 따른 교육, 임상실습의 중요성 인식 등의 항목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다양한 학습자료 제공, 임상실습평가방법 등의 항목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임상실습 전 후 전공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은 82.7%에서 96.5%로 증가했다. 실습 전·후 전공 취업 희망 분야 비교에서 지체장애(성인)분야, 아동분야, 정신건강분야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습전후 분야의 선택이 바뀐 경우가 346명 중 113명으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상실습 후 전공 취업희망 기관 및 분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변한 경우가 57.2%, 부정적으로 변한 경우가 6.7%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상실습을 통해 전공취업에 대한 인식과 희망분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불어 임상실습환경 및 실습 평가방법 등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임상실습,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취업에 대한 인식

I. 서 론

작업치료는 철학적 배경과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보건,

의료, 교육, 산업 등에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중재를 적용시키는 응용과학이며(Creek, 1990), 작업치료사는 작업적 수행이 손상되었거나 손상의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가

의미 있는 작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이다 (National Board for Certification in Occupational Therapy [NBCOT], 2008). 작업치료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클라이언트에게 작업치료중재를 적용하여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작업치료를 배출하는데 있다. 작업치료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할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론을 기초로 한 실습교육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작업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기술을 통합해야 한다. 임상실습은 이론적 지식과 실기수행능력을 하나로 통합하고, 현장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 전공과 관련된 기관의 현황 및 미래 전망을 파악하게 하여 진로결정을 도와준다(최미경 등, 2004). 임상실습교육(fieldwork education)의 목적은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이 학문적 교육을 실제로 임상에 적용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며(Provident & Joyce-Gaguzis, 2005),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임상 교육자의 감독 하에서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임상적 기술을 발달시켜 학생에서 치료사로의 전환을 촉진한다(Still, 1982). 또한 임상실습은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새로운 학습의 장으로 실습 현장의 실제 및 상호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회를 배우게 된다(천은숙, 1995).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의 임상실습교육은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실습지도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는 대학교육과정내의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기관과의 상호협조를 증시킨 구체적인 실습지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김진경과 강대혁, 2004). 김진경, 박소연, 이택영과 강대혁(2004)은 임상실습 중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해 '대학과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와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느낀' 경험이 각각 40%이상으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미국의 경우 미국작업치료사협회(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AOTA)에 의한 임상실습교육 지침은 1923년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첫 표준이 승인되어 3개월의 임상경험을 요구하였으며, 1935년 9개월, 1973년에는 6개월 임상실습으로 바뀌었고(Cohn & Crist, 1995; Presseller, 1983),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임상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작업치료과정에서 직접적인 관찰과 참여의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임상실습경험을 시작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욕

구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을 키우는 것이 수준 I 임상실습(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AOTA], 1999)의 교육 목표이다. 수준 I 임상실습에 대해서는 실습의 필요성(Leonardelli & Caruso, 1986)과 평가방법의 개발(Brown, Caruso, Stoffel, & McPherson, 1989), 실습에 대한 학교교원, 임상교육자, 학생들의 인식(Kautzmann, 1987), 독립적인 생활기술그룹을 사용하여 지역사회 영역에서 수준 I 임상실습 적용(Neistadt & Cohn, 1990; Neistadt & O'Reilly, 1988) 등의 주제로 연구되었다. 초임수준의 작업치료사가 가져야 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인 수준 II 임상실습(AOTA, 1999)에 대해서는 임상실습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연구(Shalik, 1987; Shalik & Shalik, 1988), 임상실습교육자의 중요성과 교육의 필요성(Christie, Joyce, & Moeller, 1985; Cohn & Frum, 1988), 임상실습평가에 따른 임상적 능력 평가(Crist & Cooper, 1988) 등의 연구가 보고되었다.

1990년대에는 미국에서 전통적인 지도방법이었던 1:1 지도가 학생의 수 증가로 적절한 실습이 어려워지면서 더 다양한 임상실습모델들이 연구되었다. 의학적 모델(Cohn & Crist, 1995; Neistadt & Cohn, 1990), 수준 II 임상실습에 반일제 임상실습(part-time fieldwork)을 포함시키기도 하고(Adelstein, Cohn, Baker, & Barnes, 1990), 12개월 인턴십 모델(Phillips & Legaspi, 1995), 협력적 임상실습모델(Hengel & Romeo, 1995; Nolinke, 1995), 임상실습교육의 그룹모델(Farrow, Gaipman, & Rudman, 2000),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들(Mitchell & Kampfe, 1990; 1993)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1990년대에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임상실습의 체계를 잡았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임상실습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이미자 등(2004)의 작업치료 교육에 있어서 임상실습교육 현황을 분석한 논문과 김진경 등(2004)의 작업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에 관한 연구, 김진경과 강대혁(2004)의 작업치료(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며, 지역사회중심 뇌졸중 작업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임상실습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 연구(이향숙, 2007) 등이 있는 정도이다.

임상실습은 실습생들이 작업치료사의 역할수행을 배우고 익히는 장이기에 졸업 후 작업치료사로서의 역할인식

과 수행에도 매우 큰 영향력을 갖는다. 이 때문에 임상실습은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은 물론 작업치료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이미자 등, 2004). Nolinske(1995)는 수준Ⅱ임상실습 동안의 경험이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으며, Christie 등(1985)은 작업치료사가 임상적 영역을 선택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임상실습이었다고 보고 하였다.

실습교육과 관련한 만족도나 진로선택에 관한 국내 연구는 각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학과 간호학 등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학에서는 실습모델, 프로그램, 심리적 지지, 임상실습 경험과 관련된 임상실습만족도와 진로태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었으며(강운숙, 조희, 노영숙, 부은희와 안금희, 2006; 구혜자, 2008; 권혜진 등 2009; 이성은, 2001; 이점덕, 2006; 한수정, 2000), 진로태도 성숙 중 하위영역인 결정성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하지 않은 학생보다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권혜진 등, 2009). 교육학에서는 교육실습이후 진로의식의 변화나 교직선택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져 있으며(김남행, 2006; 서하나, 2008; 조현철, 2005; 최진숙, 2005), 공통적인 결과는 교육실습이 매우 중요한 경험이지만 교육실습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진로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김남행, 2006; 조현철, 2005),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최진숙, 2005).

이렇듯 임상실습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가 미래의 전공취업 결정과 취업분야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에서 작업치료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에 따른 전공취업의 인식 변화와 희망 취업 기관 및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치료 학생들의 임상실습 후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임상실습에 따른 전공취업의 진로 결정과 희망기관 및 분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의 임상실습 후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다.
2. 임상실습 전·후 전공취업 희망 유무와 취업희망 기관, 분야의 인식 변화를 알아본다.
3. 임상실습 후 전공취업 희망기관과 분야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작업치료(학)과에서 2008년 12월까지 임상실습이 완료된 2009년 졸업예정자가 있는 학교 중 본 설문에 응답하기로 동의한 13개교의 2009년 졸업예정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중 4년제는 6개교(가야, 건양, 대불, 우송, 인제, 한서), 3년제는 7개교(경북, 동남보건, 대구보건, 대전보건, 여주, 청양, 제주한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지원한 응답자 36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 문항에 무응답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결과 총 346부(93.7%)가 통계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08년 6월 23일부터 2008년 12월 30일까지 13개 학교에 우편 발송, 회수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46)

	항목	빈도(백분율%)
성별	남자	95(27.46)
	여자	251(72.54)
나이(만)	19 ~ 23세	261(75.43)
	24 ~ 29세	85(24.56)
학제(학년)	3년제(3학년)	209(60.40)
	4년제(4학년)	137(39.60)

2.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전·후 전공취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4문항, 임상실습 3문항, 만족도 16문항, 전공취업 관련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2).

임상실습의 만족도는 문헌고찰을 통해 김학성(2004)의 연구와 이점덕(2006)의 연구의 만족도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이점덕(2006)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27개 문항으로 하위항목은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16개 항목으로 하위항목은 실습환경, 실습지도, 실습시간과 평가, 실습 후 만족도로 구성하였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설문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설문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904로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의 하위항목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실습환경 .728, 실습지도 .817, 실습시간과 평가 .734, 임상실습 후 만족도 .851로 나타났다. 만족도 측정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 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17.0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실습기간은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으며, 실습기관과 분야는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다중응답분석을 사용하였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빈도분석, 성별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 비교는 독립 t-검정

을 사용하였으며, 임상실습 전·후의 전공취업 희망 유무, 전공 취업희망 기관 및 분야 비교는 주변 동질성(Marginal Homogeneity)검정을 실시하였다. 임상실습 후 취업희망 기관·분야 인식변화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 비교는 Kolmogorov-Smirnov검증에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Kruskal-Wallis검정을 사용하였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설문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임상실습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임상실습기간은 6개월이 158명(45.66%)로 가장 높았으며, 2개월이 127명(36.70%)로 나타났다(표 3). 실습기관과 실습분야는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으며, 다중응답분석을 하여 실습기관은 대학병원 215명(62.14%), 재활병원 168명(48.55%), 종합병원 148명(42.77%)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이 대상자의 196.82%로 평균 2개 기관에서 실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분야는 지체장애(성인)분야가 339명(97.98%)로 가장 많이 실습한 분야였으며, 아동, 정신건강 순이었다(표 3).

2. 임상실습 만족도

1) 각 하위 영역별 임상실습 만족도

실습환경의 만족도에서는 5점 척도로 '임상 실습 장소 내에 치료 장비 및 도구가 다양했다'가 평균 3.60으로 가장 높고, '임상실습장소의 분위기는 학생에게 안정감을 갖

표 2. 설문문항

분류	항목
일반적 특성(4문항)	성별, 나이, 학제(학년), 학교
임상실습(3문항)	기간, 기관, 분야
만족도(16문항)	실습환경(3), 실습지도(4), 실습시간과 평가(4), 실습 후 만족도(5)
전공취업(14문항)	실습 전·후 전공취업희망여부 및 희망기관 및 분야, 기관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변화 이유, 분야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변화이유

게 한다'가 평균 3.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습지도의 만족도에서는 '임상실습지도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실습생 교육을 제공했다'가 평균 3.64로 가장 높고, '임상실습지도자는 임상실습생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했다'가 평균 3.3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4).

실습시간과 평가의 만족도에서는 '하루의 실습시간의 양이 적절했다'가 평균 3.64로 가장 높고, '임상실습 평가 방법에 대해 만족 한다'가 평균 3.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후 만족도에서는 '임상실습 후 임상실습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다'가 평균 4.26으로 가장 높고, '임상실습 참여한 것이 이전의 임상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가 평균 3.6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4).

2) 성별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 차이 비교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실습환경, 실습지도, 실습시간과 평가, 실습 후 만족도, 전체만족도로 나누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성별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 비교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세부적으로는 임상실습 후 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한 실습환경, 실습지도, 실습시간과 평가, 전체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나이 군과 학제 간에 전체 임상실습 만족도에는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임상실습의 일반적 사항

(N=346)

항목			빈도(%)			항목			빈도(%)		
실습 기간	2개월	127(36.70)	(중복응답)	대학병원	215(62.14)						
	3개월	19(5.49)		재활병원	168(48.55)						
	4개월	42(12.13)		중합병원	148(42.77)						
	6개월	158(45.66)		사설기관	39(11.27)						
	합계	346(100.00)		노인병원	26(7.51)						
실습 분야 (중복응답)	지체장애	339(97.98)		아동병원	21(6.06)						
	아동	256(73.99)		복지관	20(5.78)						
				학교	15(4.33)						
	정신건강	179(51.73)		보건소	9(2.60)						
				의원	7(2.02)						
	요양원	1(0.28)									
	기타	11(3.18)		기타	12(3.47)						
합계	785(226.88)	합계		681(196.82)							

3. 전공취업

1) 실습 전 · 후 전공취업 희망 유무 및 전공취업 희망하지 않은 이유

임상실습 전 후 전공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은 82.7%에서 92.2%로 증가했다. 실습 전 전공취업에 대해 희망하지 않았던 23명의 학생 중 14명이 전공취업을 희망하게 되었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37명중 29명이 임상실습 후 전공취업을 희망하게 되었다. 실습 전, 후 전공취업 희망 유무의 변화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

전공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실습 전에는 희망하지 않음’과 ‘아직 결정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60명중 45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결과는 ‘전공과목 공부 어렵고 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의견이 17명(37.78%)이고, 임상실습 후에는 ‘전공취업을 희망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27명 중 ‘적성 및 소질에 맞지 않아서’라는 의견이 7명(25.93%)로 전공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났다(표 7).

2) 실습 전 · 후 전공취업 희망 기관 및 분야

임상실습 전 · 후 전공 취업희망 기관과 분야를 분석하였다. 실습 전 취업희망 기관은 대학병원이 119명(34.39%), 재활병원이 60명(17.34%), 중합병원이 47명

표 4. 각 하위 영역별 임상실습 만족도

(N=346)

영역	항목	빈도 (백분율%)					전체 M(SD)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실 습 환 경	치료사와 환자, 임상실습생을 위한	4	51	114	141	36	3.45 ± 0.91
	치료 공간이 적절했다	(1.16)	(14.74)	(32.95)	(40.75)	(10.40)	
	임상 실습 장소 내에 치료 장비 및	1	36	112	148	49	3.60 ± 0.87
	도구는 다양했다	(0.29)	(10.40)	(32.37)	(42.77)	(14.16)	
	임상실습장소의 분위기는	15	73	142	92	24	3.11 ± 0.96
	학생에게 안정감을 갖게 한다	(4.34)	(21.11)	(41.04)	(26.59)	(6.94)	
실 습 지 도	임상실습지도자는 정해진 일정	3	39	89	164	51	3.64 ± 0.90
	에 따라 실습생 교육을 제공했다	(0.87)	(11.27)	(25.72)	(47.40)	(14.74)	
	임상실습지도자는 임상실습생을	7	57	128	123	31	3.33 ± 0.93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했다	(2.02)	(16.47)	(36.99)	(35.55)	(8.95)	
	임상실습내용과 관련된 치료적	5	52	129	131	29	3.37 ± 0.89
	방법이나 임상적 기술에 대한	(1.45)	(15.03)	(37.28)	(37.86)	(8.38)	
실 습 시 간 과 평 가	지도를 받았다						
	치료시간 중 실습지도자가 관찰,	5	39	98	155	49	3.59 ± 0.92
	수행, 설명 및 토론 등 다양한	(1.45)	(11.27)	(28.32)	(44.80)	(14.16)	
	지도 제공했다						
	하루의 실습시간의 양이 적절했다	2	26	104	177	37	3.64 ± 0.80
		(0.57)	(7.51)	(30.05)	(51.15)	(10.69)	
실 습 후 만 족 도	임상실습 기간에 대해 만족한다	3	33	114	154	42	3.58 ± 0.86
		(0.89)	(9.54)	(32.95)	(44.50)	(12.14)	
	임상실습 평가방법에 대한 만족한다	5	41	155	121	24	3.34 ± 0.83
		(1.45)	(11.85)	(44.80)	(34.97)	(6.94)	
	임상실습 일지 작성이 임상교육에	6	34	94	163	49	3.62 ± 0.91
	도움이 되었다	(1.73)	(9.83)	(27.16)	(47.11)	(14.16)	
실 습 후 만 족 도	임상실습 후 임상실습에 대한	1	7	41	149	148	4.26 ± 0.77
	중요성을 느꼈다	(0.29)	(2.02)	(11.85)	(43.06)	(42.77)	
	임상실습 참여한 것이 이전의 임상	6	32	101	143	64	3.66 ± 0.94
	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1.73)	(9.25)	(29.19)	(41.33)	(18.50)	
	임상실습 후 작업치료 전공에	6	33	99	136	72	3.68 ± 0.96
	대해 만족한다	(1.73)	(9.54)	(28.61)	(39.31)	(20.80)	
	임상실습 후 작업치료사로서의	2	30	89	146	79	3.78 ± 0.92
	자부심을 느꼈다	(0.57)	(8.67)	(25.72)	(42.20)	(22.83)	
실 습 후 만 족 도	졸업 후에 작업치료사로서	1	13	57	164	111	4.07 ± 0.81
	역할수행 시 도움이 될 것이다	(0.29)	(3.75)	(16.47)	(47.40)	(32.08)	

표 5.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 비교

(N=346)

만족도 하위 영역	남자(N=95)	여자(N=251)	전체(N=346)	t	p
	M±SD	M±SD	M±SD		
실습환경	3.64 ± 0.75	3.29 ± 0.71	3.39 ± 0.91	4.05	.00
실습지도	3.68 ± 0.68	3.41 ± 0.73	3.48 ± 0.91	3.15	.00
실습시간과 평가	3.79 ± 0.56	3.45 ± 0.63	3.54 ± 0.85	4.67	.00
임상실습 후 만족도	3.97 ± 0.65	3.86 ± 0.72	3.89 ± 0.88	1.36	.18
전체 만족도	3.79 ± 0.51	3.54 ± 0.57	3.61 ± 0.88	3.82	.00

표 6. 임상실습 전 · 후 전공취업 희망 유무 변화에 따른 차이 비교

(N=346)

항목	실습 후 전공취업 희망 유무(%)		전체	비-대각 케이스	p
	희망하지 않음	희망함			
실습 전	희망하지 않음	9(2.60)	14(4.05)	23(6.65)	61 .00
전공취업	희망함	10(2.89)	276(79.77)	286(82.66)	
희망	모르겠음	8(2.31)	29(8.38)	37(10.69)	
유무	전체	27(7.80)	319(92.20)	346(100.00)	

표 7. 전공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이유	실습 전	실습 후
적성 및 소질에 맞지 않음	10(22.22)	7(25.93)
전공과목 공부가 어렵고 치료에 대한 두려움	17(37.78)	6(22.22)
작업치료에 대한 외부적 인지도 낮음	6(13.33)	4(14.81)
근무 및 고용체계의 불만족	9(20.00)	1(3.70)
비전공 편입학 및 유학	0(0.00)	3(11.11)
기타	3(6.67)	6(22.22)
전체	45(100.00)	27(100.0)

(13.58%)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없음이나 기타로 응답하였다. 실습 후에는 대학병원, 재활병원, 종합병원 순은 같으나 대학병원의 취업 희망은 감소되고 재활병원과 종합병원, 사설기관은 증가하였다. 실습 전, 후 전공취업 희망 기관의 변화는 346명 중 189명이 같은 기관을 선택하고, 157명이 다른 기관을 선택하는 결과를 보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8).

실습 전 · 후 전공 취업희망 분야 비교에서 지체장애(성인)분야가 실습 전 177명(51.16%)에서 실습 후 200명

(57.80%)으로 증가하였으며, 아동분야는 실습 전 83명(23.99%)에서 실습 후 83명(23.99%), 정신건강분야는 실습 전 31명(8.96%)에서 실습 후 36명(10.40%)로 나타났다. 비율상으로는 차이가 적어 보이나 분야의 선택이 바뀐 경우가 346명 중 113명으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9).

표 8. 임상실습 전 · 후 전공취업 희망 기관

(N=346)

분류		실습 전 N(%)	실습 후 N(%)	비-대각 케이스	p
전공취업 희망기관	대학병원	119(34.39)	98(28.32)	157	.00
	재활병원	60(17.34)	85(24.56)		
	종합병원	47(13.58)	54(15.61)		
	사설기관	16(4.62)	25(7.22)		
	복지관	14(4.04)	13(3.76)		
	노인병원	13(3.76)	10(2.89)		
	학교	6(1.73)	8(2.31)		
	아동병원	6(1.73)	15(4.33)		
	보건소	4(1.16)	8(2.31)		
	기타	4(1.16)	8(2.31)		
	없음	57(16.47)	22(6.36)		
전체		346(100.00)	346(100.00)		

표 9. 임상실습 전 · 후 전공 취업희망분야

(N=346)

		실습 후 전공취업 희망분야(N)					실습 전 전체N(%)	비-대각 케이스	p
		지체장애	아동	정신건강	기타	없음			
실습 전 전공취업 희망분야 (N)	지체장애	145	20	8	0	4	177(51.16)	113	.00
	아동	25	53	2	1	2	83(23.99)		
	정신건강	6	3	20	0	2	31(8.96)		
	기타	0	1	0	1	0	2(0.58)		
	없음	24	6	6	3	14	53(15.32)		
실습 후 전체 N(%)		200(57.80)	83(23.99)	36(10.40)	5(1.45)	22(6.36)	346(100.00)		

표 10. 임상실습 후 취업희망 기관 및 분야 인식도 변화 및 긍정적으로 변한 원인

임상실습 후 취업희망 기관 및 분야 인식 변화	빈도(%)	임상실습 후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이유	빈도(%)
매우 긍정적으로 변함	15(4.34)	취업희망기관의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	50(15.48)
긍정적으로 변함	183(52.89)	취업희망기관의 치료체계에 대한 만족	88(27.24)
보통	125(36.13)	취업희망분야가 적성에 맞아서	141(43.65)
부정적으로 변함	22(6.36)	취업희망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27(8.36)
매우 부정적으로 변함	1(0.29)	기타	17(5.26)
합계	346(100)	합계	323(100)

표 11. 임상실습 후 전공취업 희망 기관의 긍정적 · 부정적 인식 변화에 작용한 이유

(N=346)

분류	세부분류	긍정적으로 작용한 이유	부정적으로 작용한 이유
치료체계	치료세팅	147(42.49)	6(1.73)
	치료공간	94(27.17)	9(2.60)
	치료도구	68(19.65)	3(0.87)
근무체계	출퇴근시간	51(14.74)	2(0.58)
	1인 근무시간	52(15.02)	7(2.02)
	주당 근무시간	65(18.78)	3(0.87)
	휴식시간	31(8.96)	5(1.45)
	1일 환자 수	40(11.56)	7(2.02)
고용체계	정규직/비정규직	128(36.99)	11(3.18)
	보조원 여부	8(2.31)	0(0.00)
	급여	32(9.25)	9(2.60)
치료에 대한 인식	기관의 작업치료 인식	103(29.77)	7(2.02)
	환자의 작업치료 인식	129(37.28)	3(0.87)

표 12. 임상실습 후 취업희망 기관 · 분야 인식변화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 비교

만족도 항목	임상실습 후 취업희망 기관 및 분야 인식 변화(M ± SD)			X ²	p
	긍정(N=198)	보통(N=125)	부정(N=23)		
실습환경	3.49 ± .74	3.25 ± .72	3.20 ± .63	11.79	.00
실습지도	3.65 ± .69	3.24 ± .70	3.37 ± .85	23.39	.00
실습시간과 평가	3.72 ± .57	3.27 ± .62	3.49 ± .68	37.18	.00
실습 후 만족도	4.16 ± .60	3.35 ± .63	3.23 ± .77	75.14	.00
전체	3.80 ± .51	3.35 ± .53	3.32 ± .59	53.13	.00

3) 임상실습 후 전공취업 희망 기관 및 분야 인식 변화와 원인

임상실습 후 전공 취업희망 기관 및 분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변한 경우가 57.23%, 부정적으로 변한 경우가 6.65%로 나타났다(표 10). 임상실습 후 전공취업 희망 기관 및 분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화된 원인은 ‘취업희망분야가 적성에 맞아서’가 141명(4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0).

전공취업 희망 기관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준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기관의 치료체계, 근무체계, 고용체계, 치료사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복수응답을 허용하였다. 취업희망기관에 긍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이유에서 치료체계에서 ‘치료세팅’이 147명(42.4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료에 대한 인식에서 ‘환자의 작업치료 인식’이 129명(37.28%), 고용체계에서 ‘정규직/비정규직’여부가 128명(36.99%)순으로 나타났다. 취업희망기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이유에서는 고용체계의 ‘정규직/비정규직’여부가 11명(3.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1).

임상실습 후 취업희망 기관 · 분야 인식변화를 긍정그룹(매우 긍정적으로 변함과 긍정적으로 변함), 보통그룹, 부정그룹(부정적으로 변함과 매우 부정적으로 변함)으로 나누어 긍정그룹, 보통그룹과 부정그룹 세 집단 간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각 영역별로

긍정적으로 변한 그룹은 보통과 부정적으로 인식이 변한 그룹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으며, 보통그룹은 부정적으로 인식이 변한 그룹보다 전체만족도, 실습환경과 실습 후 만족도는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실습지도와 실습시간과 평가 부분에서는 세 집단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각 그룹간의 차이 비교에서는 모든 만족도 항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2).

IV. 고 찰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료의학, 예방의학에 못지않게 재활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의료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각 치료사들의 역할과 책임도 함께 커지고 있다(권정아, 노재훈, 장세진, 원종욱과 심상호, 2007). 치료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임상실습은 매우 중요하다. 임상실습이란 작업치료를 실제로 클라이언트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을 훈련시켜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학생들의 생각과 자세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중요한 과정이다(김진경 등, 2004). 임상실습은 이론적 지식과 실기수행능력을 하나로 통합하고, 현장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 전공과 관련된 기관의 현황 및 미래 전망을 파악하게 하여 진로결정을 도와준다(최미경 등, 2004). 이렇듯 임상실습의 경험에 따라 미래의 전공취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임상적 영역도 선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작업치료 학생들의 임상실습 후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임상실습에 따른 전공취업의 진로 결정과 희망기관 및 분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5점 척도에 3.61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분자와 송경희(2005)연구의 2.74점,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혜자(2008)연구의 3.01점, 이순희, 김숙영과 김정아(2004)연구의 2.91점, 물리치료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병옥(1996)연구의 10점 척도에 3.46점 등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방사선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학성(2004)의 3.63점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임상실습만족도의 하위영역에서는 임상실습 후 느끼는 만족도가 3.8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습환경이 3.39점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혜자(2008)의 연구에서는 실습환경이 3.22

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실습시간이 2.79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박경은과 이성은(2002)의 연구에서는 실습환경이 3.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습지도가 2.67점으로 가장 낮은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전체 임상실습만족도 차이는 24세를 기준으로 한 나이 군과 학제 간에는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성별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세부적으로는 임상실습 후 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한 실습환경, 실습지도, 실습시간과 평가, 전체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학성이 대상인 이순희 등(2004)의 연구에서는 30세를 기준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유의한 차이에 비해 임상실습 후 인식변화에서는 성별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성별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 비교문헌이 없어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

임상실습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보면 ‘임상실습 후 임상실습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다’가 평균 4.26으로 가장 높았으며, ‘임상실습장소의 분위기는 학생에게 안정감을 갖게 한다’가 3.11점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김학성(2004)의 연구결과에서도 ‘임상실습에 대하여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낀다’가 평균 4.19로 가장 높았으며 ‘임상실습장소의 분위기는 학생에게 안정감을 갖게 한다’가 3.17점으로 가장 낮은 항목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에 해당되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해 임상실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임상실습 장소에서 안정감이 떨어지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임상실습 전 전공취업을 희망한 학생이 82.7%에서 임상실습 후 전공취업을 희망한 학생이 92.2%로 증가하였고, 실습 전 전공취업에 대해 희망하지 않은 23명의 학생에서 14명이 희망함으로 바뀌었으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37명중 29명이 임상실습 후 전공취업을 희망하였다. 또한 전공취업 희망 기관과 분야도 실습 전·후를 비교하면 실습 전·후 전공취업 희망 유무의 변화와 같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임상실습이 전공취업의 여부와 취업기관과 분야 등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Christie 등(1985)이 작업치료사가 임상적 역할을 선택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임상실습이었다는 보고와 일맥상통 한다.

실습교육과 진로선택에 대한 타 분야의 연구는 교육학에서 교육실습 이후 진로의식의 변화나 교직선택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져 있으며(김남행, 2006; 서하나, 2008; 조현철, 2005; 최진숙, 2005), 공통적인 결과는 교육실습이 매우 중요한 경험이지만 교육실습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진로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김남행, 2006; 조현철, 2005),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최진숙, 2005). 서하나(2008)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실습 전·후 비교에서 교직선택 결정 강도가 강화된 경우가 64.4%, 유지된 경우가 22.6%, 약화된 경우가 17%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은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적응해 가는 준비의 정도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진로태도 성숙 중 하위영역인 결정성은 자신이 선택하려고 의도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하지 않은 학생보다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권혜진 등, 2009). 산학실습에 대한 만족이 조리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자신이 선 실습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측정하는 산학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끼쳤고, 진로방향을 선택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유경, 황현주와 허경숙, 2006).

임상실습 후 전공 취업희망 기관 및 분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변한 경우가 57.2%, 부정적으로 변한 경우가 6.7%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후 전공취업 희망기관 및 분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화된 원인은 '취업희망분야가 적성에 맞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취업 희망 기관의 분석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치료세팅, 환자의 작업치료 인식, 정규직/비정규직'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희망기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이유에서는 고용체계의 '정규직/비정규직' 여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습기관의 수에 비해 급증하는 학생 수로 인해 실습환경이 열악해지고,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과 전문화되는 작업치료분야의 현실에서 작업치료(학)과 학생

들의 임상실습 후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임상실습에 따른 전공취업의 진로 결정과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임상실습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겠다. 제한점으로는 조사대상이 설문지에 응한 13개의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교마다 실습기간 및 일정이 동일하지 않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작업치료학생의 향후 취업을 결정짓는 주요한 교육과정인 임상실습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실습기관에서 느끼는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임상실습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임상실습을 통해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사례에 적용할 최초의 기회를 갖게 되고 임상교육자의 적극적 지도하에 전문인으로서의 태도와 기술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임상실습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느냐에 따라 전공취업을 할 것인지, 어떤 취업분야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짓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6월 23일부터 2008년 12월 30일 까지 총 346명의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후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전공취업 희망 유무 및 취업희망 기관에 대한 인식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임상실습 후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고(평균 4.26점/5점) 임상실습 후 전공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은 82.7%에서 96.5%로 증가하였다. 또한, 실습전후 분야의 선택이 바뀐 경우가 346명 중 113명으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실습 전·후 전공 취업희망 분야 비교에서 지체장애(성인)분야, 아동분야, 정신건강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상실습을 통해 전공취업에 대한 인식과 희망분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불어 임상실습환경 및 실습평가 방법 등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윤숙, 조희, 노영숙, 부은희, 안금희. (2006). 학교-병원 협력실습교육 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임상실무수행 능력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1), 13-20.
- 구혜자. (2008). 간호학생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임상실습 만족도와 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2), 205-215.
- 권정아, 노재훈, 장세진, 원종욱, 심상호. (2007). 작업치료사의 직무만족도 관련 요인.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5(1), 119-132.
- 권혜진, 김보람, 김소연, 김수임, 성정아, 신영미 등. (2009). 서울지역 4년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유·무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이화간호학회지*, 43, 41-50.
- 김남행. (2006). 교육실습이 예비교사의 신념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김진경, 박소연, 이택영, 강대혁. (2004). 작업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습에 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2(1), 69-81.
- 김진경, 강대혁. (2004). 작업치료(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에 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2(2), 91-103.
- 김학성. (2004). 방사선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연구. *방사선기술학*, 27(4), 75-83.
- 박경은, 이성은. (2002). 간호학생의 성취동기와 임상실습도에 대한 상관성 연구. *동남보건대학논문집*, 20(2), 83-96.
- 서하나. (2008). 경험한 교육과정으로서 교육실습이 교직 선택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서울.
- 이미자, 김경미, 이재신, 이택영, 강대혁, 이경식 등. (2004). 작업치료 교육에 있어서 임상실습교육 현황 분석.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2(2), 105-117.
- 이향숙. (2007). 지역사회중심 뇌졸중 작업치료프로그램을 통한 중재효과와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5(2), 105-114.
- 이성은. (2001).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실습경험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모성간호학 임상실습 중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7(2), 333-348.
- 이순희, 김숙영, 김정아. (2004). 간호학생의 간호이미지와 임상실습만족도. *간호행정학회지*, 10(2), 219-231.
- 이점덕. (2006). 프리셉터 지도를 받은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실습 만족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광주.
- 장분자, 송경희. (2005).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한국위생과학회지*, 11(1), 81-90.
- 정유경, 황현주, 허경숙. (2006). 산학실습에 대한 만족이 조리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리과학회지*, 22(5), 702-711.
- 조현철. (2005). 중등예비교사들이 교육실습 중 겪는 진로 의식의 변화와 교직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2(3), 243-262.
- 최미경, 전예숙, 홍원주, 김순경, 김동희, 김애정 등. (2004).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만족도 및 평가도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3(2), 373-380.
- 천은숙. (1995). 교육실습을 통한 교사사회화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 최진숙. (2005). 예비교사의 교육실습 전·후 인식비교. *아동학회지*, 26(4), 113-123.
- 최병욱. (1996). 일부 물리치료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3(3), 339-350.
- 한수정. (2000).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힘 복돋우기(empowerment)와 실습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1), 132-146.
- Adelstein, L. A., Cohn, E. S., Baker, R. C., & Barnes, M. A. (1990). A part-time level II fieldwork program.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4(1), 60-65.
-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1999). Standards for an accredited educational program for the occupational therapist.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3(6), 575-582.
- Brown, S., Caruso, L. A., Stoffel, V. C., & McPherson, J.

- J. (1989). Development of a level I fieldwork e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3(10), 677–682.
- Christie, B. A., Joyce, P. C., & Moeller, P. L. (1985). Fieldwork experience, Part II: The supervisor's dilemma.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39(10), 675–681.
- Cohn, E. S., & Crist, P. (1995). Nationally speaking. Back to the future: New approaches to fieldwork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9(2), 103–106.
- Cohn, E. S., & Frum, D. C. (1988). The issue is—Fieldwork supervision: More education is warranted.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2(5), 325–327.
- Creek, J. (1990). *The knowledge base of occupational therapy in occupational therapy and mental health*. NY: Churchill Livingstone.
- Farrow, S., Gaipman, B., & Rudman, D. (2000). Exploration of a group model in fieldwork education.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7(4), 239–249.
- Hengel, J. L., & Romeo, J. L. (1995). A group approach to mental health fieldwork.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9(4), 354–358.
- Crist, P. A., & Cooper, R. G. (1988). Nationally speaking—Evaluating clinical competence with the new fieldwork e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2(12), 771–773.
- Kautzmann, L. N. (1987). Perceptions of the purpose of level I fieldwork.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1(9), 595–600.
- Leonardelli, C. A., & Caruso, L. A. (1986). Level I fieldwork: Issues and need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0(4), 258–264.
- Mitchell, M. M., & Kampfe, C. M. (1990). Coping strategies used by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during fieldwork: An exploratory stud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4(6), 543–550.
- Mitchell, M. M., & Kampfe, C. M. (1993). Student coping strategies and perceptions of fieldwork.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7(6), 535–540.
- National Board for Certification in Occupational Therapy Inc.(NBCOT®). (2008). *Executive summary for the practice analysis study: Occupational Therapist Registered, NBCOT®2008 Practice Analysis*. Gaithersburg: National Board for Certification in Occupational Therapy Inc.
- Neistadt, M. E., & Cohn, E. S. (1990). Evaluating a level I fieldwork model for independent living skill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4(8), 692–699.
- Neistadt, M. E., & O'Reilly, M. (1988). Independent living skills groups in a level I fieldwork experienc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2(12), 782–786.
- Nolinske, T. (1995). Multiple mentoring relationships facilitate learning during fieldwork.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9(1), 39–43.
- Phillips, E. C., & Legaspi, W. S. (1995). A 12-month internship model of level II fieldwork.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9(2), 146–149.
- Presseller, S. (1983). Nationally speaking—Fieldwork education: The proving ground of the profession.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37(3), 163–165.
- Provident, I. M., & Joyce-Gaguzis, K. (2005). Brief Report Creating an occupational therapy level II fieldwork experience in a country jail setting.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9(1), 101–106.
- Shalik, L. D. (1987). Cost-benefit analysis of level II fieldwork in Occupational Therap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1(10), 638–645.
- Shalik, H., & Shalik, L. D. (1988). The occupational therapy level II fieldwork experience: Estimation of the fiscal benefit.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2(3), 164–168.

Still, J. R. (1982). Mini-councils: A solution to fieldwork supervision.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36(5), 328–332.

Abstract

The Change of Awareness of Decision on Employment Through the Fieldwork for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Lee, Hyang-Sook^{*}, Ph.D., O.T., Noh, Jong-Su^{*}, M. Sc., O.T.,
Cha, Jung-Jin^{*}, M. Sc., O.T., Kim, So-Ran^{**}, D.S., Kim, Seul-Kee^{***}, D.S.,
Park, Sang-Geul^{****}, D.S., Sim, Seung-Jin^{*****}, D.S., Lee, Ji-Hye^{*****}, D.S.,
Chu, Min-Suk^{*****}, D.S.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Anyang Charmseoul Rehabilitation Hospital

^{***}Hyewon Social Welfare Center for the handicapped

^{****}Social Welfare Corporation Happy House Nursery

^{*****}Deajeon Boram Hospital

^{*****}Bucheon Hyundai Hospital

^{*****}Milal Social Welfare Center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ieldwork satisfaction of students majoring in occupational therapy (OT), and to ascertain a change of perception on deciding on a course after fieldwork, and on a desired field and facility.

Methods :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OT from June 23rd to December 30th of 2008. The questionnaires of 346 respondents were analyzed through cross- and multi-reply analyses, a marginal homogeneity test, and a Kruskal-Wallis test using SPSS ver. 17.0.

Results : In fieldwork satisfaction, highly satisfied items were diversity of therapeutic equipment and tools, regular education, and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fieldwork. Items appearing to have low satisfaction were an offer of various learning materials and an evaluation of fieldwork. After fieldwork, the students' ratio of desired employment as an occupational therapist increased from 82.7% to 95.6%. The desired fields were in the order of physical dysfunction (adult), children's health, and mental health. Among the 346 respondents, 113 changed their decision on a desired field, which is statistically meaningful. The awareness of their decisions on employment and desired field changed positively for 57.2% students and negatively for 6.7%.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identified that the awareness of one's decision on employment and desired field changes through fieldwork.

Key words : Awareness of decision on employment, Fieldwork, Satisfaction of fieldwork